

# 체육과학의 발전면모를 보여준 전시회

체육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체육과학기술경쟁에서 앞서면 승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패자가 되며 체육의 과학화야말로 체육발전의 추동력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제23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전 전시회는 나라의 체육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는 체육과학의 발전면모를 잘 보여준 계기로 되었다.

《체육과학과 자력자강》을 주제로 진행된 전시회에

는 체육연구원과 조선체육과학을 비롯하여 300여개의 단위에서 이룩한 과학적기술적재물과 프로그램, 체육기자재, 체육의약품 및 영양제, 체육과학기술도서 및 문헌 등 1000여건의 체육과학기술성과들이 출품되었다.

전시회에서 참관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훈련기재들이었다.

소백산산기술폭발사에서 내놓은 자동타구포발사기는 타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교류사의 김원국부원의 말에 의하면 이 기재는 지난 시기에 개발된것에 비해 타구발사시의 조종성능을 개선하고 기계장치 및 전자장치의 믿음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훈련기재를 청소년 체육학교들에 도입해 본 결과 훈련기재의 믿음성이 훨씬 개선되고 짧은 기간내에 학생들의 타구기술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는 좋은 훈련기재라는 평가를 받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선수들의 훈련을 과학적으로 진행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측정기재와 프로그램들도 출품되었다.

판모봉체육단에서 연구제작한 《휴대용 실시간무선맥박측정기》와 《훈련부담량평가체계》 프로그램도 우수한것으로 평가되었다.

《휴대용 실시간무선맥박측정기》는 무선맥박수감부를 리용하여 선수들의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시간으로 정확히 선수의 맥박과 보폭수를 측정할수 있으며 선수들에게 훈련시간과 휴식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어 컴퓨터에 기입한 훈련계획에 따른 선수들의 훈련밀도를 최대한 높일수 있게 한다.

또한 《훈련부담량평가체계》 프로그램은 측정된 선수의 맥박과 보폭수에 근거하여 훈련의 총부담량을 감독이 신속정확히 평가하게 한다.

량광일 판모봉체육단 연구사는 설계와 제작을 자체로 하는 과정에 애로도 많았다고 하면서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체육과학의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해놓았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앞으로 측정기재와 프로그램을 더욱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전시회에 출품된 하나하나의 전시물마다에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나라의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체육과학연구사들과 교원들, 감독들의 애국의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여 있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켜나가는 체육부인 일꾼들과 연구사들의 드높은 열의를 느낄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선수들의 훈련을 과학적으로 진행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측정기재와 프로그램들도 출품되었다.

판모봉체육단에서 연구제작한 《휴대용 실시간무선맥박측정기》와 《훈련부담량평가체계》 프로그램도 우수한것으로 평가되었다.

《휴대용 실시간무선맥박측정기》는 무선맥박수감부를 리용하여 선수들의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시간으로 정확히 선수의 맥박과 보폭수를 측정할수 있으며 선수들에게 훈련시간과 휴식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어 컴퓨터에 기입한 훈련계획에 따른 선수들의 훈련밀도를 최대한 높일수 있게 한다.

또한 《훈련부담량평가체계》 프로그램은 측정된 선수의 맥박과 보폭수에 근거하여 훈련의 총부담량을 감독이 신속정확히 평가하게 한다.

량광일 판모봉체육단 연구사는 설계와 제작을 자체로 하는 과정에 애로도 많았다고 하면서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체육과학의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해놓았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앞으로 측정기재와 프로그램을 더욱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전시회에 출품된 하나하나의 전시물마다에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나라의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체육과학연구사들과 교원들, 감독들의 애국의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여 있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켜나가는 체육부인 일꾼들과 연구사들의 드높은 열의를 느낄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선수들의 훈련을 과학적으로 진행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측정기재와 프로그램들도 출품되었다.

판모봉체육단에서 연구제작한 《휴대용 실시간무선맥박측정기》와 《훈련부담량평가체계》 프로그램도 우수한것으로 평가되었다.

《휴대용 실시간무선맥박측정기》는 무선맥박수감부를 리용하여 선수들의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시간으로 정확히 선수의 맥박과 보폭수를 측정할수 있으며 선수들에게 훈련시간과 휴식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어 컴퓨터에 기입한 훈련계획에 따른 선수들의 훈련밀도를 최대한 높일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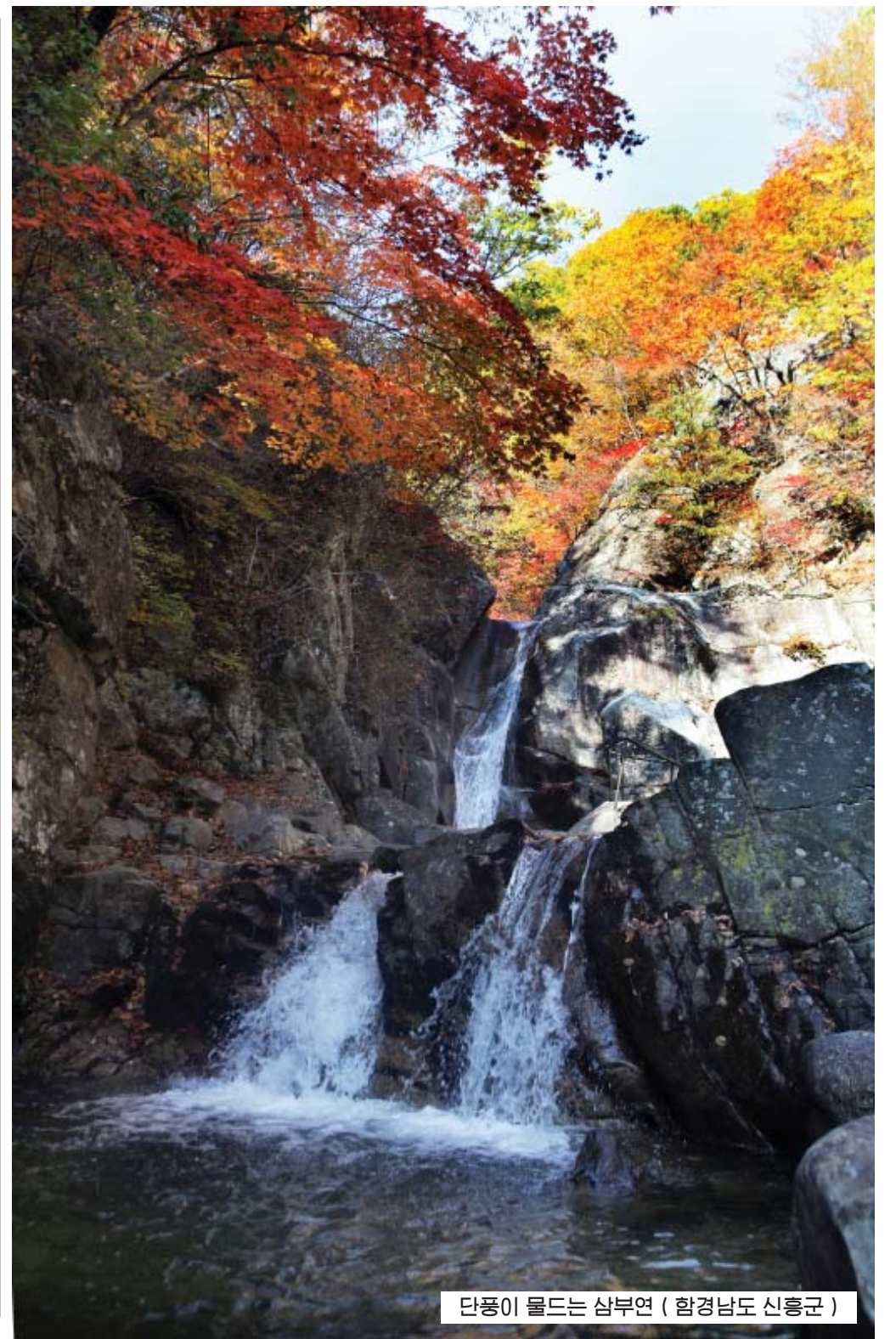
또한 《훈련부담량평가체계》 프로그램은 측정된 선수의 맥박과 보폭수에 근거하여 훈련의 총부담량을 감독이 신속정확히 평가하게 한다.

량광일 판모봉체육단 연구사는 설계와 제작을 자체로 하는 과정에 애로도 많았다고 하면서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체육과학의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해놓았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앞으로 측정기재와 프로그램을 더욱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전시회에 출품된 하나하나의 전시물마다에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나라의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체육과학연구사들과 교원들, 감독들의 애국의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여 있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켜나가는 체육부인 일꾼들과 연구사들의 드높은 열의를 느낄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 철



단풍이 물드는 삼부연 (함경남도 신흥군)

## 고려 2대왕의 무덤 새로 발굴

최근 개성에서 고려 2대왕 혜종의 무덤이 새로 발굴되었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와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송도사범대학교 원, 학생들과 함께 개성시에 있는 송도저지지의 북쪽기슭 산성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혜종의 무덤을 발굴하였으며 과학적으로 고증하였다.

3개의 구획으로 구분되는 무덤의 윗구획은 봉분(직경 13m, 높이 3m)과 그 보호시

설들, 표식비가 있고 중간구획에는 좌우에 각각 한쌍의 문관상이, 아래구획에는 제당터가 있다.

무덤칸의 규모는 길이 4m, 너비 3.4m, 높이 2.2m로서 지금까지 발굴된 고려왕릉들 가운데서 제일 크다.

《高麗王陵》(고려왕릉)이라고 새긴 비석과 청자 새김무늬잔받침대, 꽃잎무늬막새기와, 룡모양의 치미(지붕머리마루)의 두 끝에 설치하는 조각장식(조각돌)을 비롯한 유물들도 발굴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회에서는 무덤의 형식과 위치, 유물, 역사기록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심의분석한데 기초하여 고려 2대왕 혜종의 무덤이라는것을 확정하였다.

고려초기 왕릉무덤인 온혜릉을 발굴한데 이어 고려 2대왕 혜종의 무덤을 발굴한것은 고구려와 고려의 문화적계승관계를 밝히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사기자



장고제작기술이 공화국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 기술은 우리 민족이 근면한 로동생활과정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민족타악기의 하나인 장고를 만드는 전통적인 기술이다.

구조는 울림통과 울림막으로 되어있다.

울림통재료로는 오동나무를 쓰는데 15~20년 자란 나무가 적합하다. 대용재료로는 가문비나무, 전나무, 잣나무 등을 쓰며 오동나무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오동나무

## 장고제작기술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

장고는 가운데가 잘록한 원뿔통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복편통, 오른쪽에는 제편통을 잇대어놓았으며 그것들을 조임줄로 연결시킨 악기이다.

구조는 울림통과 울림막으로 되어있다.

울림통재료로는 오동나무를 쓰는데 15~20년 자란 나무가 적합하다. 대용재료로는 가문비나무, 전나무, 잣나무 등을 쓰며 오동나무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오동나무

장고는 가운데가 잘록한 원뿔통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복편통, 오른쪽에는 제편통을 잇대어놓았으며 그것들을 조임줄로 연결시킨 악기이다.

구조는 울림통과 울림막으로 되어있다.

울림통재료로는 오동나무를 쓰는데 15~20년 자란 나무가 적합하다. 대용재료로는 가문비나무, 전나무, 잣나무 등을 쓰며 오동나무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오동나무

의 속을 파거나 쪽무음하여 제작한다.

울림막은 노루가죽 등으로 만들어 대용재료로는 소가죽, 돼지가죽, 염소가죽을 쓴다.

장고의 제작은 울림통공정, 울림막공정, 완성조립공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소리가 독특하고 울림진것으로 하여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는 장고는 민족적정취를 돋구어주는 다양한 성격의 장단을 훌륭하게 살려냄으로써 음악형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 진명과 그 유래

### 강 선

진실에 예로부터 평양은 산천이 매우 아름다워 신녀들만이 아니라 신남들도 자주 내려와 놀던 곳이라고 한다.

신남들은 구름을 타고 룡마도의 능수버들숲과 모란봉의 솔밭에 내려와 놀다가 모란봉기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과 대동강의 푸른 물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생활이 흥미있어 그들과 같이 즐기는 때도 많았다.

그러던 어느날 한 신남은 모란봉기슭의 한 농부의 딸이 알지 못할 병으로 오래동안 앓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하늘나라에 올라가 신선들이 쓰는 약을 가져다 먹었다.

그러자 처녀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아졌을뿐아니라 더 어찌어찌하고 건강하여 농사일도 하게 되었다.

농부는 딸을 구원해준 신남이 너무 고마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하여 잘 대접하곤 하였다.

신남은 농부의 정성을 거절할수 없어서만이 아니라 어떤 그의 딸에게 마음이 끌려 자주 찾아왔으며 어떤 때에는 며칠씩 묵으면서 그와 함께 밭도 가꾸고 경치 좋은 곳으로 놀러 다니기도 하였다.

이 나날에 신남은 아름다

운 평양의 자연과 사람들의 고운 마음씨를 더욱 느끼게 되었다.

여러 신남들중에서 그를 제일 사랑해오던 옥황상제는 그를 불러다 엄하게 추궁하고 다시는 인간세상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신남의 뜻을 꺾을수 없음을 알게 된 옥황상제는 비록 아쉬워하지만 그에게 평양에 내려가도록 승낙해주었다.

신남은 하늘에서 내려와 농부의 집으로 찾아갔고 농부에게 딸과 결혼을 하고 함께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신남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인 농부는 혼례식을 치러주고 후에는 쪽배를 하나 무어주면서 대동강가의 그 어찌어찌하고 건강하여 농사일도 하게 되었다.

농부는 딸을 구원해준 신남이 너무 고마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하여 잘 대접하곤 하였다.

신남은 농부의 정성을 거절할수 없어서만이 아니라 어떤 그의 딸에게 마음이 끌려 자주 찾아왔으며 어떤 때에는 며칠씩 묵으면서 그와 함께 밭도 가꾸고 경치 좋은 곳으로 놀러 다니기도 하였다.

이 나날에 신남은 아름다

본사기자



## 사화

### 릉 참 봉 (2)

글 리 원 주, 그림 리 성 일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하고나니 도리어 어두운 생각이 가서지고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다. 그러나 청량리에 당도하여 한 객집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곰국냄새에 갑자기 찾자가 뒤를리는듯 한 허기를 느꼈다. 벌써 해가 산마루우에 높이 솟았는데 그는 아직 아침요기도 안했던것이다. 그는 해를 쳐다보고 조바심하며 객집안에 들어갔다. 담배연기가 자욱하고 술냄새와 고기국의 누린내가 어우러져 쿠키하고 술막힐듯 한 방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상을 놓고 술을 마시며 떠들고있었다. 고영근로인은 불쾌감을 누르고 상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로 옆자리에서는 중년나이의 사나이들이 곁상을 하고 앉아서 술잔을 찜으며 히히닥거리고있었다. 그들의 말걸에 부려뚫이시니, 곰국이니 하는 소리가 들리고 고영근은 저도 모르게 귀를 도사렸다.

《김서방, 아니 분참봉나오리, 이젠 의관 정제하고 왕가의 의식에까지 참례하게 됐으니 하관말적이라도 벼슬이 좋긴 좋군.》

《홍, 사람이 벼슬을 했나, 돈이 벼슬을 했지.》

《그 말 한마디는 바로했네, 현대 분참봉처럼 한장에

2백원이란 너무하지 않나. 더구나 그 첩지라는데 가짜라던데.》

《가짜를 팔아먹는 진짜랑 반처럼 우리도 한번 행세를 해보세, 세상이 그런걸.》

고영근이 가만히 듣고보니 스쳐지날 이야기가 아니다. 하여 그가 말참배를 했다.

《남의 이야기에 끼여들어 안됐소만 그 분참봉처럼 하는게 대체 뭐요?》

둘이 흠뻑해서 상대를 바라보다가 점잖은 로인인이라 팔시지 못하고 사나이 하나가 대답했다.

《어디서 오시기에 지금 장안에 소문이 파다한 그걸 다 모르시오, 곰국냄새 참봉을 시키겠단다 수다한 첩지를 내다 팔았지요.》

《그럼 분참봉이라 할것이지 왜 분참봉이라 하는거요?》

《릉이란 말을 피하느라고 분이란 글자를 쓴 모양입니다.》

《허, 그런데 그 첩지는 누가 팔았소, 왜놈들이요?》

《아니외다. 리왕비의 숙부이지요. 왜놈의 자작작위까지 받은자니 왜놈을 끼고 한것이지요.》

《무엇이! 매국역적 육덕영 그놈이 이젠 승하하신 태황제폐하의 명위까지 더럽히는것을 하다니! 허, 이놈을 그저...》

고영근은 험한 기상이 되

여 들었던 수저를 뺏겨치고 벌떡 일어섰다. 길에 나선 그의 두주먹은 더욱 팍팍 여여지고 어깨는 더 세게 들먹거렸다.

(이놈을 요정내지 않으면 고영근이 성을 갈데다.) 하고 그는 속으로 곰곰고 곰씹었다.

그가 종묘에 당도했을 때는 부태묘의식이 거행되기 직전이었다.

먼길을 걸은 피로를 풀사이도 없이 그는 허둥지둥 제식장으로 들어갔다. 제식장에 불꽃 나라난 고영근을 알아본 순종이하 종친들은 놀라움과 반가움을 금치 못했다. 자기들도 못하는 시모를 4년동안이나 스스로 해온 이릉참봉은 자기들의 살을 메어주어도 아까울것이 없는 은인이었고 나라는 망해도 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의 결곡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한편 나란히 서있던 리완용과 육덕영은 눈살을 찌푸렸다. 한때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풍언하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인물이 아닌가. 이번에도 무슨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고영근은 앞으로 나아가 한쪽옆에 부복했다.

이윽고 고종태황제의 명위와 명성태황후의 명위를 종



위한지 얼마 안되어 비범적인 《정미7조약》으로 황제의 허울만 남았고 3년후에는 《한일합병조약》의 날조로 그 허울마저 잃어버렸다.

망국의 설움에 복받친 고영근은 갑자기 목이 팍 메고 눈물이 쏟아지며 입에서는 호곡이 터져나왔다.

《태황제폐하, 망국의 설움이 망국하오이다, 폐하, 폐하!...》

한편 이 때아닌 《폐하》 소리가 제식에 참례한 사이 또종족의 비위를 몹시 상하게 했다. 대일본제국에서

《리태왕의 묘를 지키는 참봉이올시다, 총독각하.》

사이드의 털뭉치를 붙여놓은것 같은 눈빛이 꿈틀했다.

《모지? 그런자를 여기엔 왜 데려왔는가. 당장 내보내게 하라.》

곤도는 난감한 얼굴을 하더니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길게 늘어놓았다.

《총독각하, 저 고영근이란 늙은이로 말하면 한때 장단군수도 했고 궁내부에서 고종을 섬긴 일도 있습니다. 울미사변(1895년 일본침략자

## 유담이

### 정수동의 기지

정수동은 세력가인 김홍근이 남의 돈 7만냥을 때먹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 그 돈을 토해놓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어느날 그는 김홍근의 집 앞을 지나다가 대문안에 있는 한 녀인이 아이를 붙안고 어쩔줄 몰라하는것을 보았다.

물어보니 그 녀인은 김홍근네 식모인데 자기 아이가 동전 한알을 삼켰다는것이였다. 정수동이 녀인에게 물었다. 《그게 누구의 돈이요?》

《제 돈이예요.》

《아, 그러면 일없습니다.》

《정말 일없을가요?》

그러자 정수동은 큰소리로 말했다.

《일없구말구... 어떤 사람은 7만냥이나 되는 남의 돈을 삼키고도 끄떡없는데 자기 동전 한알 삼키게 무슨 일이겠소.》

이 말을 들은 김홍근은 그 돈을 슬그머니 입자게 돌려주었다.

정수동이 앞으로 어떤 풍문을 내들릴지 몰라 두려웠던것이였다.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80년대 속도》가 창조되던 날에

공화국의 역사는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승리만을 새겨 온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사회주의대건설로 빛나는 1970년대를 이어 이 땅위에 평양번영기를 펼친 1980년대에 줄기차게 관통되어온것은 다름아닌 자력갱생의 정신이다. 1980년대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위대한 창조

의 년대이며 공화국이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강국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진 거창한 전진의 년대로 력사에 빛나고있다. 주체사상탑,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병상관, 서해갑문, 5월1일경기장, 문수거리, 광복거리, 대형산소분리기, 1만t 프레스 ... 오늘날도 그 모습 빛나는 이 모든 창조물들은 거창한 변혁과 세기적기적이 이룩되

던 지난 세기 80년대의 격동적인 나날들을 되새겨보게 한다. 주체69(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한번 일대 양양을 일으켜 나갈것을 온 나라에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제1차대회의 승리를 기념하시며 제시하신 광명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당, 전국, 전민을 이끄시며 들끓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담목표수행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차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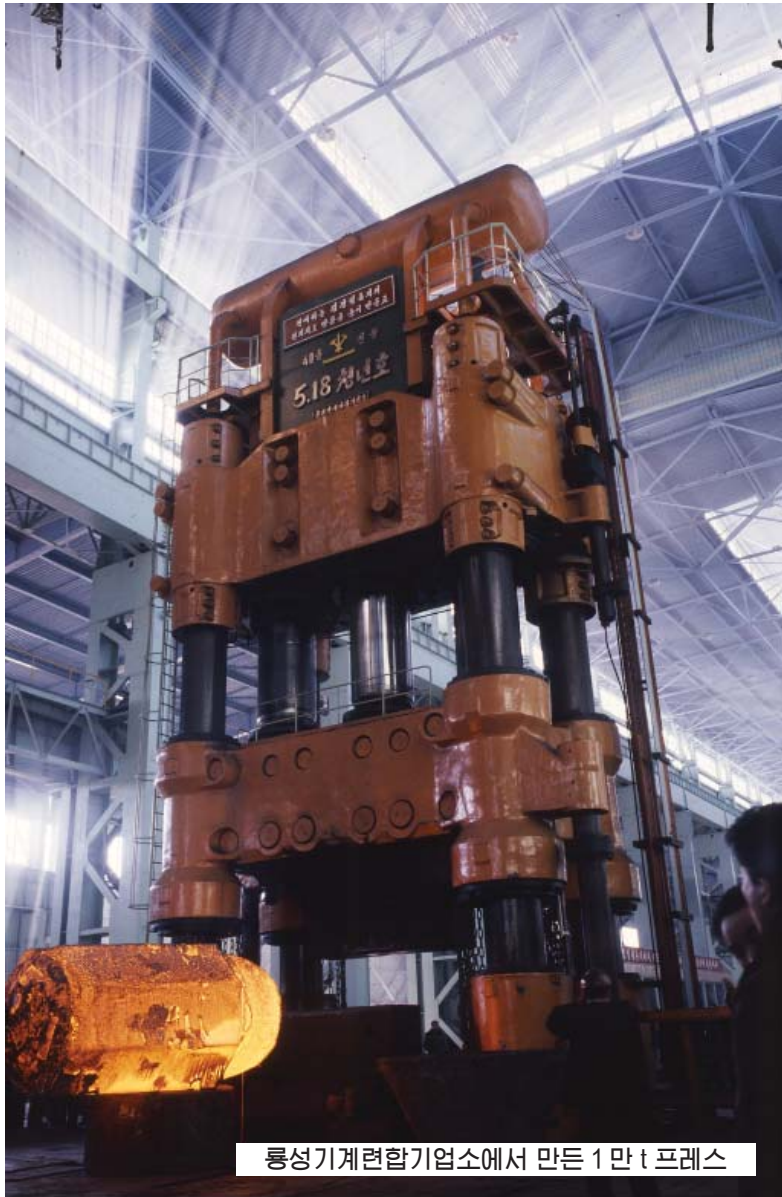
관심을 돌리신것이 유색금속고지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늘이는데서 걸터앉으셨던것을 기억하시라. 당시 1만t 프레스를 만드는 나라는 불과 몇개였다. 기계제작공업의 력사가 오래지 않은 공화국의 실정을 놓고볼 때 당시 1만t 프레스는 그야말로 보통의 담력은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할 대상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용성기계련합기업소의 기계를 맡아주시고, 기술자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기시고 몸소 현지를 찾으시여 용성기계련합기업소는 힘있는 기업소라고 하시면서 자체의 힘으로 1만t 프레스를 만들어내도록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용성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기로의 용량이 모자라던 로를 개조하여 용량을 늘이고 이전걸이면 들어올릴 엄두도 내지 못한 135t 짜리 소재를 30t 능력의 기중기로 대담하게 들어올리었다. 그리고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던것은 찾아내면서 설게도 제작도 조립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냄으로써 1만t 프레스를 기어 이 훌륭하게 만들어내고 야말았다. 용성기계련합기업소를 또 다시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1만t 프레스를 보시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이께서 용성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자력갱생하여 만든 1만t 프레스를 신문에 낸 사진만 보고있을수도 없고 천리마대강련합기업소에 가져다 설치해놓은 다음 거기에 가서 보면 용성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설해할것 같아 오는 시간을 내어 찾아왔다고 하시였을 때 용성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걱정의 눈물을 쏟았다. 서해갑문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일떠세운 자랑스러운 세기적창조물이다. 건설의 첫발을 뜬 때로부터 5년, 그 짧은 기간에 20리 날바다우에 세계글지의 갑문이 일떠서고 새로운 서해갑문 건설속도가 창조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된다고 하시며 높이 평가하신 서해갑문건설은 조선에서는 볼가능이런 있을수 없던것을 온 세계앞에 다시한번 증명해주었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80년대속도창조의 불길을 새차게 일으키시라는 나날에 무신의 철산봉마루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최전적정기기가 다른 나라 최전적정기기와의 곱셈경에서 단연코 승리하여 만사람을 경탄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도 힘있게 벌어져 불과 만년 남짓한 기간에 5000여대의 현대적인 공작기계들이 생산되는 놀라운 성과도 이룩되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신기루와 같은 기적이라고 높이 평가하신 평양번영기도 바로 자력갱생의 열풍이 온 나라에 새차게 몰아친 1980년대에 펼쳐졌다.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승리만을 떨쳐온 공화국의 력사에 창조와 기적의 년대로 빛나게 아로새겨진 1980년대를 공화국인민들은 오늘날도 잊지 못하고 있다.

공화국에는 인민의 존엄높은 삶이 꽃피고 행복만이 계속되어온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이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애국자들이 수없이 많다. 여기에 한 리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어느 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공훈리발사청호를 수여받은 한 평범한 리발사를 만나서 축하해주시며 자분주의사회에서는 직업의 귀천을 가리면서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값으로 치지 않았다고,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 당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그가 구두수리를 하건, 리발사를 하건, 탄을 캐건, 무슨 일을 하든지 차별하지 않고 최상의 영예와 영광을 안겨 주신다고 뜨겁게 고사하시였다. 그 믿음, 그 사랑속에 공화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국자로, 영웅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중에는 수십년세월도 로관리로 순결한 망명을 바쳐가는 구봉령가속대원들처럼 한해에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기적을 창조한데 이어 5개년전략고지

도 넘넘저 점령한 검덕의 광부들도 있다. 한직중, 한초소에서 묵묵히 헌신하고있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근 30년 간 구역의 주민세대들에 먹는물을 원만히 공급하기 위하여 콧물, 마른일 가리지 않고 량심껏 성실하게 일해온 로동자도 있고 평양의 밝은 불빛을 지켜 수천척지하락장에 헌신의 자욱을 아로새긴 탄부도 있으며 수십년세월 중앙급물자동차를 몰고 건설장마다에 성실한 땀을 흘려온 녀성자동차운전사도 있다. 주체106(2017)년 9월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시고 당에서 격려하는 문제, 당이 바라는 일에 한몸 아낌없이 내대는 투철한 신념과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으로 누가 보건말건, 알이주건말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원혁명가로서의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이들모두의 순결한 애국심에 머리가 숙여진다고, 온 사회가 이들을 적극 내세워주어야 하며 그들이 지닌 혁명적정신, 후대관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날 로정화 감산군 금급고급중학교 소상분교 교원은 지나가나 보고싶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사기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애국자라고 불러주시 큰 큰 믿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한생 끝까지 분교의 교단을 지켜갈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애국자란 별다른 사람이 아니다. 비록 겉모양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자기 고향마을과 일터, 자기 기대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찾아하기 위해 예새 노력하는 사람이 참된 인간, 진정한 애국자인것이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과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부모의 뒤를 이어 50여년간 도시경영부문에 일하면서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애국의 땀과 열정을 다 바치고 자녀들도 그 길에 내세운 신의주시물정화사업소 로동자 최정순녀성은 사람들이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고 이야기 할 때면 한생 걸은 길이 후회되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생각해보면는 더욱 없다고, 앞으로도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갈 결심이라고 말하곤 한다. 공화국에서는 그 어느 일터나 다 부강조국을 떠받드는 주추이며 공화국의 통일발전을 바로 매 공민이 자기 직업에 대한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자기의 일터를 성실하게 지켜가려는 높은 도덕적자각과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누구나 한없이 귀중한 조국을 떠받드는 성품이 되고 뿌리가 되려는 마음을 지닌 애국자들이 많아 공화국은 굳건하고 미래는 더욱 밝은 것이다.



용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만든 1만t 프레스

그리하여 승용차의 방향을 바꾸어 내던시던 길 아닌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길이 어찌나 험난한지 한바퀴가 빠져서 뿔아내면 또 다른 바퀴가 빠져군 하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는 것처럼 험난한 길을 헤치시며 용성의 로동자, 기술자들을 찾으시여 그들의 심장에 자력갱생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그리하여 걸터의 제3선광장건설을 위한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추진되고 마침내 대규모 선광장이 일떠서게 되었다. 불과 1년, 세계 건설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창조적 기적을 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터 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은 80년대 속도창조운동의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커다란 민족을 표시하시였다.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된다고 하시며 높이 평가하신 서해갑문건설은 조선에서는 볼가능이런 있을수 없던것을 온 세계앞에 다시한번 증명해주었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80년대속도창조의 불길을 새차게 일으키시라는 나날에 무신의 철산봉마루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최전적정기기가 다른 나라 최전적정기기와의 곱셈경에서 단연코 승리하여 만사람을 경탄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도 힘있게 벌어져 불과 만년 남짓한 기간에 5000여대의 현대적인 공작기계들이 생산되는 놀라운 성과도 이룩되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신기루와 같은 기적이라고 높이 평가하신 평양번영기도 바로 자력갱생의 열풍이 온 나라에 새차게 몰아친 1980년대에 펼쳐졌다.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승리만을 떨쳐온 공화국의 력사에 창조와 기적의 년대로 빛나게 아로새겨진 1980년대를 공화국인민들은 오늘날도 잊지 못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된 신발제품들

《가을철전국신발전시회-2019》 진행

신발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뿐 아니라 옷, 모자와 함께 몸차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얼마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가을철전국신발전시회-2019》는 끊임없이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되어가고있는 나라의 신발공업발전모를 잘 보여준 계기로 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산구두공장, 류원신발공장, 신발공업리국 신발연구소, 한덕수령양경공업대학을 비롯한 50여개 단위에서 1300여종에 18만 2500여점의 신발제품이 출품되었다. 그리고 신발공업부문에서 이룩된 연구성과자료들도 제출되었다. 전시회장에서 만난 신발공업리국 신발연구소의 한 일군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신발생산단위들 사이에 경쟁열의가 더욱 높아지고 신발제품들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실현에서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말하였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니 원산구두공장에서 생산한 질 좋고 맹시있는 각종 구두제품들이 많은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었다. 원산구두공장의 리금실부원은 《한켄의 구두를 만들어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명제품, 명상품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 공장의 구두제품들에 대한 견해를 적은 수첩을 보며 신발의 질을 개선해나가고있다고 하면서 이 수첩이 보배처럼 지켜진다고 말하였다. 용성구역에서 살고있는 리정혁은 원산구두공장에서 생산한 구두제품들이 하나같이 모양이 곱고 질이 좋다고 하면서 불철신발전시회에 구두 한켄만 샀었는데 이번에는 계절에 맞는 신발을 여러켄 사야겠다고 말하였다. 한민 신어보고싶은 충동을 누를수 없게 하는 운동신발, 체육신발들을 출품한 류원신발공장전시대도 사람들로 붐비었다. 60여종의 각종 운동신발, 체육신발들을 출품한 류원신발공장에서 이번 전시회에 10여종의 새 제품들도 내놓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최근 공장에서는 여러건의 새 기술혁신안들을 도입하여 제품의 제자화와 질을 높이는데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한다. 《운동신발이 밭에 꼭 붙는게 좋지만, 《역시 운동신발은 가벼워야 하거든》 ...

그뿐이 아니었다. 만경대구두공장에서 생산한 《천리》상표를 단 천원가죽구두제품들도 인기가 높았다. 특히 류원신발연구소에서 생산과정에서 버려지던 자재를 재자원화하여 만든 새 제품이었다. 재자원화하니 버리는것이 없어 좋고 구두생산량이 늘어나 좋다고 공장의 한 일군은 자랑삼아 말하였다. 이곳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구두생산에 리용하던 신발을 갱신하고 초원업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구두의 질을 훨씬 높이고있었다. 기자는 자기 공장에서 생산한 축구화, 룡구화, 배구화, 탁구화들의 우점에 대하여 신이 나서 설명하는 전승체육제품공장의 한 일군도 만나보았다. 그는 이번 전시회에 새로 개발한 운동신발들과 체육신발들을 신어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며 애써 일한 보람이 있다고 말하였다. 맵시 있는

사출신발들을 출품한 조선금은산무역회사의 한 일군도 전시회에 참가하니 느껴지는 바가 크며 앞으로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려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겠다고 말하였다. 신의주시신발공장, 라선삼룡신발공장 등 많은 단위에서 출품한 다종다양한 신발제품들도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았다. 《가을철전국신발전시회-2019》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더 좋은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경쟁열풍을 새차게 일으켜가는 신발공업부문 일군들과 생산자들의 드넓은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김진혁



아름다운 거리

한낮에 울리던 기쁨의 웃음소리 밤에도 노래소리로 이어져 거리를 걷는 내 발걸음도 더 더욱 흥에 겹구나 ... 아름다운 거리, 그것은 바라볼수록 사람들에게 유아하면서도 조화로운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러한 거리일것이다. 낮에 보는 리명거리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신선함과 상쾌함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고층에서 70층초고층살림집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높이의 아파트들이 넓은 부지에 구색이 맞게 자리잡고있다. 거대한 담보양, 원통모양,

꽃잎모양 등 여러가지 모양의 건축물들이 립체적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늘어서있다. 아파트들의 화려한 모습 뿐만아니라 넓은 구획에 전개된 리명거리 종합상업구를 비롯하여 초고층건물들을 따라 늘어선 각종 봉사망들의 건축양식 또한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분을 들뜨게 해준다. 리명거리는 낮에 보아도 화려하지만 밤의 광경 또한 그대로 장관이다. 건축물들에 설치된 각이한 조명장치들이 눈부신 빛을 뿌리며 회한 불야경을 펼쳐놓고있다. 불장식들에서 뿌려지는 여러 색의 밝은 빛에 의해

건축물들이 화려하게 단장되어 독특한 건축미를 드러내고있는가 하면 고층, 초고층건물들에 설치된 수많은 밝은 투광등들에 의해 그것들의 웅장함과 건축학적특성이 잘 살아나고있다. 밤이 깊어가도록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밝은 불빛은 마치도 어둠을 밀어내는 리명처럼 보이며 사람들이 하여금 이 거리의 이름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한다. 리명거리의 아름다움은 결코 그 겉모습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이렇듯 훌륭한 거리에서 교원, 과학자들을 비롯한 사회의 평범한 주민들이 살림을 꾸리고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고있는것이 리명거리의 진짜 아름다움이라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명거리의 아름다운 풍경

평화언어를 짓밟는 해치급 망발

최근 남조선군부와 보수패당이 공화국이 서해열점지역의 섬들을 전조기기로 꾸렸다고 걸고들며 자국적인 망발을 꾀쳐왔다.

얼마전 《국회국정감사》에서 남조선해병대는 공화국이 2015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갈도와 장재도, 무도, 아리도, 함박도를 하나로 묶어 군사기지화하고 있다. 이 5개 섬을 유사시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공격을 단행하기 위한 전조기기로 만들었고라고 렬설하였다. 그러면서 북이 서해 5개 섬 일대에 해안포와 방사포, 곡사포 등 250~300여문의 각종 포를 배치하였으며 연평도와 백령도를 비롯한 남측의 섬들을 직접 사정권에 둔 해안포는 50~60문이나 된다고 들어왔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합박도가 무인도일 때에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현재는 감시장비와 레이더가 설치되고 한계 소대 정도의 병력이 주둔하고있기때문에 위협적이다》, 《북은 안보를 위협

하는 적이다.》고 떠벌인것이다.

한편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합박도는 1978년 박정희정권때 강화군정의 소유주지로 등록하고 관리해왔다》, 《옛 신문에 실린 지도에 합박도가 북방한계선이남에 있는것으로 표시되었다》고 생역을 부리면서 합박도문제를 북남대결과 저들의 집권실현에 악용해보려고 획책하였다.

이번 남조선군부와 보수패당의 대결담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완전히 백지화하여서 공공연한 도발이며 서해해상권을 또다시 위협천만한 군사적충돌수역으로 만들고 정세를 첨예한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용납 못할 망동이다.

지금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걸고드는 서해의 섬들로 말하면 철저히 공화국의 자국언어 행사되는 지역들로서 여기서 공화국을 무언을 하든 저들이 시비질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노릇이다. 더우기 남조선호전세력들의 계속되는 북침도발책동으로 하여 북남이 군사적충돌위협성이 가장 높은 이 지역을 공화국이 무방비상태로 둘수 없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실제로 서해의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충돌을

방지할것을 확약한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합의서를 관복하게 위반하고있는 장본인, 주범은 다름아닌 남조선군부이다.

남조선군부자체가 저들의 서해 5개 섬일대의 포병력 배치와 사격 및 기동훈련 등 《대북군사대비》태세는 북남군사분야합의서태력이전보다 더 높아졌고 섬들이 철저히 요새화되었다고 로골적으로 떠벌고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해병대사령관이라는자가 자기 동족을 보고 《주적》이라고 췌쳐대며 그 무슨 《초토화계획》까지 작성해놓았다고 광기를 부리고 있다.

이것은 가뜰이나 위태로운 북남관계와 평화의 기회를 아예 망쳐놓지 못해 몸살이 난자들이 아니고서는 시결일수 없는 망발이다. 이렇듯 검은 속통을 가진자들이기에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돌아앉아 신성한 우리 평토를 노린 불순한 계획까지 세우고 북침합동군사연습과 청담전도장비도입책동에 광분하며 정세를 끊임없이 악화시키고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대가 누구인지 망각하고 분별없이 펼쳐대는 열간망동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본사기자 유금주

얼마전 남조선에서 진보적인 대학생들이 미국대사관에 대한 기습점거시위를 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내외의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18일 오후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리용하여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돌입한 《한국대학생진보련합》 소속 대학생 10여명은 《미군지원금 5배증액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들고 《분담금인상 철폐반대》, 《미군규탄》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미국대사관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통성투쟁을 벌리는 대학생들을 체포하였으며 대학생들은 경찰에 끌려가면서 《미군은 이 땅에서 나가라!》, 《내정간섭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멈추지 않았다.

사건은 즉시에 여론의 큰 주목을 받고있다.

당시 청와대에 서 열린 어느 한 모임에 참가하고있던 미국대사는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황급히 자리를 뜨지 않으면 안되였다.

사건발생후 남조선에 있는 미국대사관측과 미군주부대 변인실이 《대사관은 14개월만에 대사가 머무르는 관저에 불법적으로 집입하는 사건이 두차례나 발생했는데 해 강한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고있다》, 《모든 외교관들에 대한 보호노력을 강화해줄것을 촉구한다》고 한것은 미국이 얼마나 당황당조해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미국대사관기습점거가 대학생들의 의롭고 정당한 투쟁이라고 하면서 련행된 학생들을 적극 석방하라고 요구해나서고있다.

민중당, 《한국진보련대》, 《한국대학생진보련합》, 민주로총, 전농, 민변 등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주한미대사관의 행태는 조국통동태장과 같은 행위》, 《주한미군은 이 땅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각종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의 행동은 처벌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으로 격려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언론들은 《미국대사관에 진보단체대학생들이 들어가 시위를 벌인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980년대 미국문화원점거투쟁을 련상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악화된 한미관계를 적라라하게 보여주는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결코 우연한 평가가 아니다. 다 이는사건과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 동지를 들고있는 《미국문화원》 등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총지

휘하는 대표적인 현지지배기구, 지역적거점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이 《미제축출》 등 구호와 함께 화염병을 던지며 진입을 시도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반미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본격화되면서 광주와 부산, 서울과 대구 등에 있는 《미국문화원》들이 련이어 공격당하

이듬해에는 부산대학교의 학생모임인 반미자주화반파소민주화투쟁위원회 10여명이 부산 《미국문화원》에 《미제축출》 등 구호와 함께 화염병을 던지며 진입을 시도하였다.

1980년대에 있는 반미사건들은 근 반세기에 걸치는 미국의 식민지정착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울분의 폭발로서 적극적인 반미자주화투쟁의 새로

하고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해리스가 직접 나서서 《방위비분담금 5배요구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미국으로서 총분치 않겠다》고 하면서 로골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인상을 압박해나섰다.

최근 남조선에서 여론조사결과 따르면 조사참가자의 75.1%가 《방위비분담금》인상을 반대해나섰다고 한다. 이러한 여론속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인상 압박에 분노한 여러 대학 학생들이 대개시관에 이를 규탄하는 대자모들을 불이우고있다.

《한국대학생진보련합》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리스 미국대사관 방위비분담금을 5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며 《그런것들에 대한 규탄과 항의차원에서 남조선에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이번 미국대사관기습점거의 정당성을 주장해나섰다》.

이번 미국대사관기습점거시위는 반미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중단없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는 뚜렷한 실체이다.

만일 미국이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더욱더 오만하게 나온다면 남조선인민들의 더 큰 항의와 규탄만을 불러일으킬뿐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기에 보관되어있는 렬화우라니움탄을 남조선군이 관리해주고있는 사실이 언론들에 의해 폭로되었다.

그에 의하면 남조선공군은 저들의 인력을 동원하여 경기도 수원공군비행장에 보관되어있는 미군의 렬화우라니움탄 132만발을 관리하고있으며 여기에 해마다 많은 자금을 지출하고있다고 한다.

알려진것처럼 렬화우라니움탄은 보관과 사용과정에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을 내보내어 공기와 토양을 오염시키는것은 물론 사람속에서 백혈병과 암환자를 대량 발생시키고 죽음에

로 몰아가는 대량살상무기이다.

지난 만전전쟁과 발칸전쟁, 이라크전쟁후 현지주민들은 물론 미군사병들속에서 많은 백혈병과 암에 걸린 환자들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있는것이 미군이 쏟아부은 렬화우라니움탄에서 생겨난 방사능의 후과라는것이 밝혀진것도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에는 렬화우라니움탄을 용납할수 없는 인민들적인 무기로 규탄하면서 미국이 그의 생산과 저장, 사용을 당장 금지할것

을 강력히 요구하여왔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침전쟁연습을 구실로 2000년까지 남조선의 경기도 화성군 매항리의 사격장에서 렬화우라니움탄투하연습을 강행하다가 남녘인민들의 격렬한 항의투쟁이 벌어져서 《연습단》이라며 책임을 회피한적이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렬화우라니움탄을 수백만발이나 남조선에 쌓아두고있으며 오기나와에 비추었다가 일본인민들의 거센 항의로 철거한 렬화우라니움탄까

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는것을 하였다.

그 목적이 다른데 있지 않다.

언제든지 이 땅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며 그때 《악마의 무기》를 쏟아부어 삼

니 얼마나 역스러운 굴종행위인가.

오늘 세계의 도처에 미군기지들이 있지만 민족침화를 불러오는 악마의 살인무기를 인민들의 혈세까지 십겨까지며 모반관리해주는 쓸개빠진 밑씻개노릇을 하는 곳은 오직 남조선밖에 없다.

방사능오염이 45억년이나 지속된다는 렬화우라니움탄을 부여잡고 외세의 뒤바라지를 하고있는 남조선관부의 사환군들이야말로 가련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당국이 외세굴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재난을 당하는것은 인민들뿐이다.

김철성

재난을 불러올 미국제 렬화우라니움탄

을 감행하다가 남녘인민들의 격렬한 항의투쟁이 벌어져서 《연습단》이라며 책임을 회피한적이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렬화우라니움탄을 수백만발이나 남조선에 쌓아두고있으며 오기나와에 비추었다가 일본인민들의 거센 항의로 철거한 렬화우라니움탄까

대도 화하였었다.

남조선의 한 시인은 《유신》 독재시기를 《겨울공화국》이라고 저주하기도 했다.

그런 《겨울공화국》의 통치자인 《유신》 독재자를 《반신반인》이라고 추어올린자도 《자한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무리속에 있었고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췌친자들도 지금 《자한당》 무리속에 서식하고있다.

《자한당》 대표라는자는 《유신》 독재자의 쿠데타를 분반야 《대통령》 권한대행시기 초불항쟁을 겨냥한 군사쿠데타를 모의했었고 적페의 원흉들이 《박사모》,

리 민주개혁세력, 통일에국세력, 초불민심을 숙청하며 저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부귀와 향락을 누리던 과거를 되살리자는것이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된다면 독재정당들이 살아 숨쉬는 한모금의 공기도, 한조각의 땅마저 차려지지 않는다는데도 있었다.

그래서 비참한 종말을 당한 《유신》 독재자를 《정신적기둥》으로 삼고 감옥에 처박힌 역도년을 《대통령》의 《중심》으로 내세우며 《유신》 부활의 사당춤을 미친듯이 추어내고있는것이이다.

《유신》 망명을 부르며 정의의 민심을 짓밟으려는 《유신》 정당들의 망동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10월인민항쟁참가자들의 념원을 실현해나가는가 아니면 과거 독재시기에로 돌아가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로 된다.

《유신항수》에 미쳐 40년전의 과거를 부활시켜보려는 《자한당》 매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바로 《유신》 독재자의 말로, 그 후의 종말과 남조선인민들과 시대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물은 배를 띄울수도 있고 가라앉힐수도 있는것처럼 렬사는 파쇼폭압이 있는 곳에는 인민의 반항이 있다는것을 1979년 10월인민항쟁은 다시 한번 실증해주었다.

《유신》 독재를 거꾸러뜨린 40년전 10월의 그 정신, 그 루지, 그 기백은 결코 렬사의 과거만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조경남



1979년 10월 26일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궁정동에서 열린 총서리로 남조선의 《유신》 독재자는 종말을 고하였다.

그것도 제일 민던 심부의 총탄세례를 받고서, 종신징역을 위해 인민을 마구 탄압, 학살하던 군사독재자, 할애비처럼 여기던 상전에게서 버림을 받은 인족반역자에 차려진 비참한 말로였고 웅당한 귀결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유신》 독재자는 이미 마지막음을 몰아치고있었다.

《독재정권라도》, 《유신헌법철폐》, 《학원의 민주화》, 《언론의 자유보장》 등의 구호를 들고 1979년 10월에 일어난 부산, 마산 민주항쟁은 리승만의 《하야》를 끌어낸 4.19봉기를 방불케 하였던것이다.

10월민주항쟁은 악명높은 매국노, 《유신》 독재의 원흉을 파멸시키고 그 잔당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리었다.

유신인적 숙명이었던지 《유신》 독재자의 후예인 박근혜의 운명도 제 예비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

박근혜의 파쇼독재와 특대형부정부패에 격분하여 일떠선 각계층 인민들의 대규모 초불투쟁은 남조선인민운동사에서 새로운 한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10월 26일 《유신》 독재자가 심복에게서 총탄을 받았것처럼 박근혜도 10월 26일 자기의 수족으로 여기던 이전 《새누리당》의 친박계들로부터 《투검도입찬성》이라는 《베신의 총탄》을 받았다.

남조선인민들이 평하였던것처럼 18년간 《유신》 독재시기를 향유했던 박근혜는 정계에 나선지 18년만에 탄핵소추를 받고 정치총장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고 끝내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예비는 군사쿠데타, 딸은 선거쿠데타, 쿠데타부녀의 운명은 다같이 수치스러운 종말로 끝난것이다.

《유신의 부활이라기보다는 더욱 진화한 판본》이고 《단순한 과거회귀가 아니라 일종의 변종》이었던 박근혜 《정권》의 파멸은 《유신》 독재부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경종이고 심판이었다.

같이 절격거리면 법도 입을 다문다는 성구가 있다.

그러나 《유신》 독재자가 영구통치를 망상하며 조작한 《유신헌법》이 불어오는 폭압의 회오리속에 남자를 너자로, 너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을 내놓고 그 무엇보다 다한다는 중앙정보부(당시)와 경찰, 검찰 등 《공안》 세력이 인민들을 대상으로 무지한 칼부림을 해왔다.

당시 7~8명당 1명씩 해당하는 폭압력량으로 미행, 도청, 잠복감시, 구속을 하며 사회전반을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든것이 《유신》 독재의 파쇼 《내대화》였다.

《반공》을 《국시》로 삼

고 한마디라도 통일을 말하면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면서 시민들은 《반상화》에, 학생들은 《파도호국단》에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반공단체》들에 강제로 묶어놓은것이 바로 《유신》 독재자의 《국민통합》이라 할수 있다.

남조선정치사에서 《유신체제》는 악명높은 독재폭압 통치체제로 기록되어있다.

지금도 《유신체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표상은 한마디로 《엄동철한》이다.

《비상계령》, 《위수령》, 《비상사태》가 번질나게 선포되고 《조기방학》, 《정치휴교령》, 《방병법규》, 《집중검문검색》, 《긴급조치》 등의 폭압조치들을 련발하는 《유신》 독재의 칼바람속에 남조선인민들은 숨을 죽이고 사회는 말그대로 민주주의 동토

다. 국제적망신이다. 리유를 불분하고 주도자들을 색출하여 의원직에서 사퇴시켜야 한다고 들고일어났다.

그런데 라경원은 《국회》를 싸움터로, 탄장관으로 만들어놓은 불량법들에게 앞머리 《포상》을 하겠다고 췌치고있으니 그의 저급한 사 고수준에 사람들은 아연함을 금치 못하고있다.

결국은 저들의 당리당락을 위해서는 합마나 쇠지레 대를 들고 다른 당의 의원들을 끌어내리고 시실물들을 들부서버려도 언젠지 《국회》 의원자리를 고수할수 있게 해주겠다는 수작이고 정치가 뒤가 된다. 《국회》가 돌아가든말든, 남조선인민들이야 어떻게 되든으로도 《동물국회》, 《전쟁국회》를 얼마든지 췌쳐보이겠다는 망발이다.

더욱 가관인것은 당대표라는 황교안이 라경원의 《포상제안》에 머리를 끄덕이었던이라고 지탄하는것은 너무나 엉당하다.

《자한당》이라는 《조독》의 우두머리는 명색상 황교안이겠지만 실지로는 《치마바람》을 일으키는 라경원인셈이다.

이전 《새누리당》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치마바람》에 망하더니 《치마바람》이 또 일어 시작된 《자한당》에 이제 어떤 운명이 차려지겠는지?

김정혁

독재잔당들의 가소로운 《유신항수》

고 한마디라도 통일을 말하면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면서 시민들은 《반상화》에, 학생들은 《파도호국단》에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반공단체》들에 강제로 묶어놓은것이 바로 《유신》 독재자의 《국민통합》이라 할수 있다.

남조선정치사에서 《유신체제》는 악명높은 독재폭압 통치체제로 기록되어있다.

지금도 《유신체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표상은 한마디로 《엄동철한》이다.

《비상계령》, 《위수령》, 《비상사태》가 번질나게 선포되고 《조기방학》, 《정치휴교령》, 《방병법규》, 《집중검문검색》, 《긴급조치》 등의 폭압조치들을 련발하는 《유신》 독재의 칼바람속에 남조선인민들은 숨을 죽이고 사회는 말그대로 민주주의 동토

《태극기부대》 등 어중이 떠중이들까지 끌어모아 돌아치면서 《내란》을 선동하고있다.

지어 《자한당》 매거리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초불투쟁을 《폭도들의 란동》이라 췌치고 제놈들의 불법무도한 반 《정부》 망동을 《10월항쟁》으로 떠들어대며 40년전 《유신》 독재를 거꾸러뜨린 항쟁용사들을 모독하고 우롱하고있다.

놓쳐버린 고기가 더 크게 생각된다 《유신공주》의 집권시기에 파쇼독재시대를 더 크게 부활시키지 못하여 양양불락하는 《자한당》 무리에게 더더욱 《유신》 독재자를 떠들리는것은 어쩔수 없는 생리일것이다.

《자한당》 매거리들이 무엇때문에 《유신》 독재를 미화하며 《유신항수》를 전파하고있는가.

파쇼독재의 칼날을 휘둘

《유신》 망명을 부르며 정의의 민심을 짓밟으려는 《유신》 정당들의 망동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10월인민항쟁참가자들의 념원을 실현해나가는가 아니면 과거 독재시기에로 돌아가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로 된다.

《유신항수》에 미쳐 40년전의 과거를 부활시켜보려는 《자한당》 매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바로 《유신》 독재자의 말로, 그 후의 종말과 남조선인민들과 시대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물은 배를 띄울수도 있고 가라앉힐수도 있는것처럼 렬사는 파쇼폭압이 있는 곳에는 인민의 반항이 있다는것을 1979년 10월인민항쟁은 다시 한번 실증해주었다.

《유신》 독재를 거꾸러뜨린 40년전 10월의 그 정신, 그 루지, 그 기백은 결코 렬사의 과거만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유신》 망명을 부르며 정의의 민심을 짓밟으려는 《유신》 정당들의 망동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10월인민항쟁참가자들의 념원을 실현해나가는가 아니면 과거 독재시기에로 돌아가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로 된다.

《유신항수》에 미쳐 40년전의 과거를 부활시켜보려는 《자한당》 매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바로 《유신》 독재자의 말로, 그 후의 종말과 남조선인민들과 시대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물은 배를 띄울수도 있고 가라앉힐수도 있는것처럼 렬사는 파쇼폭압이 있는 곳에는 인민의 반항이 있다는것을 1979년 10월인민항쟁은 다시 한번 실증해주었다.

《유신》 독재를 거꾸러뜨린 40년전 10월의 그 정신, 그 루지, 그 기백은 결코 렬사의 과거만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망조든 집안의 《치마바람》

얼마전 남조선의 《자한당》 원내대표 라경원(신속처리안건)수사를 받을 의원들에게 공천가산점을 주어 야 한다.》고 떠들어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4월 《자한당》은 주요개혁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것을 육탄이 되어서라도 무조건 밟겠다고 하면서 메거리로 달려들어 법안들을 심사하는 《국회》 의원실과 사무실들을 여러 시간이나 봉쇄하고 10시간동안 폭력싸움을 벌려놓아 여러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가지 않으면 안되였고 폭력싸움에 나선 수십명의 《자한당》 매들은 고소되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다.

당시 남조선 각계층과 언론들은 《국회》가 《식물국회》로부터 《동물국회》, 《전쟁국회》로 전락되었

기하려 하다가 눈총에 질려 머리로 못 들고 비지땀만 흘려다 다시 기여나온것만 하여 《망대포》로 조롱받은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청와대의 《치마바람》에 남조선사회가 대혼란상태에 빠졌던것도 물론이고, 그렇게 《치마바람》이 이어 가면서 《햇바람》들이 금식거리려만 보이는 라경원이니 물론엔 치마에 땀 묻은걸 거러라 하는 심보로 《자한당》의 《햇바람》들에게 《포상》까지 걸고서 폭력을 선동하고있는것이다.

라경원의 《치마바람》에 힘을 얻었던지 《자한당》 매거리들은 당대표로부터 시작하여 남조선전역을 싸다며 《내란》 선동을 계속 집회망동들도 계획적으로 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라경원의 이번 《포상》 나발을 두고 《자한당》은 정당이 아니라 《조독》(조직폭력배)집단이라고 지탄하는것은 너무나 엉당하다.

《자한당》이라는 《조독》의 우두머리는 명색상 황교안이겠지만 실지로는 《치마바람》을 일으키는 라경원인셈이다.

이전 《새누리당》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치마바람》에 망하더니 《치마바람》이 또 일어 시작된 《자한당》에 이제 어떤 운명이 차려지겠는지?

김정혁

리케이 김정은 평화담화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시위하며 새형의 주체단들이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솟구쳐올라 민족의 기상과 슬기를 온 세상에 남겼음이 떨치고있는 오늘 우리 겨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자부심을 가슴뜨겁게 느끼고있다.
오늘 공화국이 세계가 공인하는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물리치며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희생적인 헌신으로 견고결연하신 조국수호의 길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국력강화로 류레없이 엄격한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평화변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장군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도 길이 전해지고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민족적자존심은 어느 민족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특히 작은 민족일수록 더욱 강해야 한다고, 민족적자존심을 가지지 못하면 자기의 고유한 민족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다른 민족에게 예속될 수 있다고 준철히 이리시었다.
그러시면서 조국이 통일되지 못한 조건에서 민족적자존심을 높여야 한다고, 우리 민족은 자기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이라고 교시하시었다.
무릇 민족적자존심은 막강한 국력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국력이 강하다고 해도 정도자의 정치적대가 약하면 민족적존엄도 빛을 잃기마련이다.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이 살고있고 나라마다 지도자가 있다지만 큰 나라의 눈치만 보며 숨드러지듯 못하고 자기의 리익이 침해당하면서도 제 할소리도 못하는 레가 적

지 않다.
하지만 공화국은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지닌신 강철의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두려움을 모르며 사회주의수호전과 부강조국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해올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990년대의 그 존엄한 나날력사에 류레없는 고난과 시련을 부국강병의 위업으로 이겨내시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주시었다.
공화국의 운명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판가리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가방위력강화로 만년시련을 뚫고나가시며 민족존엄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었다.
그이의 헌신적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위상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되었으며 조국통일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감회도 새로운 주체 85(1996)년 11월 2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관문점시찰을 진행하신 이날은 그이께서 이어가신 애국헌신의 갈래에 뚜렷한 한페지로 기록되어있다.
제국주의노예가 되겠는가 아니면 자주적인민, 자주적공민이 되겠는가.
생사를 판가름하는 최악의 환경속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어떻게 수호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심오한 철리가 담겨진 이 교시는 바로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판문점조소 군인들에게 하신 교시이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 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려는 넘원으로부터 해마다 통일행사가 진행되는 이곳에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수령님의 친필비를 세우게 하였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그 어떤 시련의 광풍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백두령장의 강인담대한 배짱

과 철석의 신념, 조국통일에 대한 그이의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 강한 기상앞에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살상광풍과 반통일도전은 걸음마다 산산이 짓부셔졌으며 조국통일위업은 힘차게 진전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하기에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을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려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고 단호히 맞받아 쳐갈기시는 드센 배짱가, 장군중의 장군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가 일심단결이고 둘째가 군력이라고 하시면서 군력이 있어야 외국과의 관계가 자주적립장에서 풀어나갈수 있다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야전부지락을 날리시며 사생결단의 의지로 헤쳐가신 철령과 오성산의 칼바람길, 초도의 풍랑세찬 바다길에는 무진막강한 군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시려는 그이의 결연한 의지가 아로새겨져있다.
오늘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생애와 그이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김정은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끝없이 빛을 뿌리고있다.
김정은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국력과 전략적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애국유산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말것이다.

통일애국의 열정을 더듬어 (12)
해외동포들과의 연대와 단합을 위하여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도 통일의 주체적력량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지난날 민족수난의 비극속에 정든 고국산천을 떠나 이국의 하늘아래서 살아가는 해외동포들에게 있어서도 조국통일의 소원은 다름없었다.
수많은 동포들이 해외에 이주하여 살게 된 조건과 조국통일에 대한 그들의 강렬한 지향을 고려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민족통일정부에 북과 남의 대표들과 함께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을 참가시킬것이라는것이 명기되어있다.
해외동포들과의 단합을 실현하는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외세와 남조선의 군사과속독재 《정권》이 《두개 조선》을 추구하고 통일에 역행하는 정책에 대항하는 조건에서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났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통일력량을 망라하는 민족대통일전선이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실현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해외동포들과의 단합을 위한 대화와 접촉이 활발히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공화국은 북과 해외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외민주인사들과 종교단체들에 편지를 보내어 각각적인 접촉과 대화, 협상을 진행할것을 제기하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가운데 1981년 6월 서부도이칠란드(당시)에 있는 《조국통일해외기자대회》 회장 일행이 평양을 찾아왔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이대사의 접촉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기

구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동포들사이의 다각적인 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에 따라 우선 조국통일에 관한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교신자간의 대화를 마련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초하여 대화를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회의가 열리게 된다는것을 알게 된 남조선당국자들은 회의를 파탄시켜보려고 별의별짓을 다하였다. 그들은 200여명의 행동대를 무어 아메리카지역과 서부도이칠란드에서 해외동포들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위협하고 매수하도록 하였고 회의장소를 내주지 못하게 하는 한편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경우에는 시위와 테러, 람치 등 여러가지 방해책동을 벌리도록 하였다.
분렬주의자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1981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교신자간의 첫 뜻깊은 대화가 개최되게 되었다.
회의에는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교신자대표 45명, 방청 3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36년간의 연대부터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갔다.
그러하여 1980년대초에 북과 해외동포들사이에서 통일력량의 연대실현을 위한 대화와 접촉이 활발히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회의에서 진행된 연설과 제기된 연설들에 대한 광범한 질문과 토의를 통하여 동포단체대표들은 련방국가창립방안을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조국통일방안으로 지지환영하였으며 반외세, 반파쇼민주화투쟁과 련공통일의 길에 나설것을 표명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조선이 외세의 희생물이 되어 영구분렬될수 없다는것을 확고히 믿고 나라의 통일은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리념과 계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단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하여, 자주, 민주, 평화, 중립적인 련방국가를 창설하는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는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대화참가자들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민족사의 소망과 조성된 내외적조건을 정확히 구현한 통일강령》으로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해외의 전체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여 민족의 유일한 출로인 련방국가를 세우기 위한 통일의 길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각계 동포들의 광범한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대화의 마당을 더욱 넓혀나갈것을 호소하였다.
회의는 해외동포들이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단결하면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할수있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통일을 열망하는 온 겨레에게 새로운 용기와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1982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기간에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제2차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교신자간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제1차 대화는 주로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교신자간의 대화가 되었다면 제2차 대화부터는 그리스도교신자뿐아니라 각계층 동포들이 참가한 범동포적인 대화로 발전하였다.
이 대화에는 공화국북반부를 비롯하여 유럽과 미국,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등지에서 온 100여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국통일운동에서 반미자주화로를 구현할데 대한 문제와 민족주체적합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가 중심문제로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전두환군사과속독당의 《민족화합민주통일론》의 기만성과 분렬주의적본질을 폭로 규탄하면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그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준비위

원회를 내오며 북과 해외동포들사이의 대화의 폭을 넓혀 대민족회의의 전제를 마련할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점을 보였다.
회의에서는 민족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부터는 북과 해외의 광범한 동포들을 망라한 북과 해외동포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그들을 쌍방이 편리한 지역에서 진행할데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거듭되는 접촉과 대화, 협상을 통하여 북과 해외동포들사이에는 신뢰의 장이 두터워지고 통일운동에서의 련대가 실현되게 되었다.
공화국정부는 북과 해외동포들사이의 폭넓은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요한 기구를 내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1984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이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북과 해외동포들간의 범동포대화가 열리고 비상설협의체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련합》이 결성되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련합》이 결성됨으로써 해외의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살고있는 동포들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불려일키며 통일운동의 자연발생성과 분산성을 극복하고 운동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게 되었다.
여러 대륙의 해외동포들이 민족자주의 리념에 기초하여 하나의 통일애국력량을 결속되고 북과 해외의 련대가 실현되게 된것은 북과 남, 해외의 민족대통일전선형성에서 하나의 주추목이 마련된 뜻깊은 사변으로 되었다.
1980년대초에 해외동포들과의 련대가 실현됨으로써 온 겨레의 소망인 통일국가창건의 필수적조건인 3자련대와 민족대통일전선을 이룩할수 있는 토대가 닦아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최광혁

이해도 그냥 흘러간다
올머 웃으며
통일의 족배를 나누도록
중아, 울지 말아
새해의 문고리를 잡기 전에
우리 생각의 매듭을 짓자
1만 4 600밤을
하루밤도 빠짐없이
자식을 불러온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식
들도
그 허고많은 세월을
통일을 기다리며 살았으리
산도 변하고
바위도 늙고
세월에는 녹이 쓸어도
꽃이 피고
혈육의 정은 진동이 멎지
않아
한시간이 천근인듯
이 밤이 무거워서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말이
없고
어둠은 그냥 바다물처럼
고인다
누가 족배를 들자느냐
분렬의 땅에서 유리잔 부
딛는 소리는
얼음장 굵이 가듯
싸늘한
소리
마흔해만에
는
기어코 저 강변의 문을 열어
물결이 터지듯 기쁨이 터져

수기
통일을 그리며 북과 함께 (3)
매한 주제이다. 그래서 통일시인 김상훈은 행복하지 못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통일이 그리운 사람이었기때문이다.
나의 유년시절은 끝났다. 그 집에서 중학교와 전문학교를 졸업한 나는 군대에 갔던 것이다. 그 사이에 집은 두 번 이사했다. 5층짜리 아파트에서 10층짜리 아파트로, 처음에는 내 칸짜리 집으로 갔다. 우리 인민의 생활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나는 제대후 2년만에 문학예출판사 기자가 되었다. 군중문학현상모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배치된 날 아버지가 주머니에 누구더냐고 물어서 김학연선생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반가워하면서 전생지기 장편실화소설 《인민복수자들》을 낼 때 담당편집원이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번 전화라도 해주었으면...)
아버지는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이런 아버지가 책상과 의자를 사왔다. 그것도 신혼살림이나 갖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해 주던 훌륭한 가구였다. 어떻게 사왔느냐고 물으니 집 밑에 있는 건재상점(아직도 있다.)에서 《나는 작가이고 내 아들은 기자야. 그런데 집엔 책상이 하나밖에 없었다.》했더니 주더라는 것이었다. 상점에서야, 아버지에게도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특별히 문학수업을 받은적이 없다. 그때도 스물세살에 기자가 되어 서론한살에 편집부장이 되었다. 내 동생 종석이기도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제대되어 와서 김형직사범대학작가반을 졸업하고 장편소설 두권, 영화문학 한편을 실현

시했다. 《평양날과람》이 (김상훈의 시 《말》에서) 《이 문둥아!》, 《이 가시나야》 아버지 고향말씨라네게 이런거다. 처음엔 우습다가 하도 절절하니 다음엔 눈물이 났다.
집엔 평생 늘 물어내는것이 도 있는데 그게 고추산적이다. 팔고고추, 빨고고추, 들을 낱알가루에 묻혀 기름에 튀기는 꽃고추튀김, 눈물이 줄줄 흐르며 매운 음식이다. 어쩌다 생일날이나 명절날이 음식이 빠지면 일생 음식타발을 모르는 아버지가 막 신경질을 냈다.
《내가 회의호식을 바라누는, 산해친미를 해달라는가?》 아버지의 고향음식이야. 눈물이 나고 맛있게 먹어야 하는 고추산적이다. 하도 습관이 되어서 이젠 나의 손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갈도 못 본 아버지의 손녀선생이까지도 그 매운 고추를 정말 잘 먹는다. 음식이 야기를 하나나 또 한가지 생각한다.
아버지는 1987년 5월에 암 진단을 받았다. 외국치료도 예견했었는데 그랜 이미 늦으면 《속가자신은 병명도 구체적으로 모르는채(내가 술기였다.)》 집에서 한 식별 치료를 받았다. 별의별 의사들이 다 왔었다. 휘장암엔 고기가 나쁜데 소고기는 좋다고 한다. 리사리를 하면 더더서 질 좋은 소고기를 얻어왔는데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경상도 처창은 지독한 산골이다. 옛날에 거기서부터 서울까지 과거시험을 보러가지만 한어름처럼 도변하지 않는 좋은 음식이 있어야 했는데 그게 바로 소육회이다. 중국리리가 전문이지만 조선리리도 꽤 잘 아는 처도 모르는 경상도식 소육회도였

수상자 김상훈이라는 명함이
돌사진말에 새겨져있는
털사
통에 계신다.
아버지 수령님께서 찾아
내어 보호해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처럼
빛나게
맺어주시
아버지의
한생은
자랑스러운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행복에
대하여
생각
해본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
에
있는가.
아버지는
늘
개
관사정이라는
말을
했다.
관
두경이
단기는
순간까지
비
록
이루지는
못했어도
하나
의
목적
을
향해
즐거우게
나
간
삶이
행복이
아니겠는가!
1987년
8월
30일
밤,
아버
지는
보통강주변에
있는
집
에서
보통을
하직하였다.
장
래는
기관장으로
하였다.
통일을
못
보시고
돌아가신
아버지
안타까운
그
마음이
밤하
늘의
달이
되어
밤마다
내
창가를
지켜보고
계시나
활짝
핀
우리
살림
대견하
여
웃으시다
홍에
겨워
잠시라도
남녘
을
잇을세라
흰구름
사이사이로
마음쓰
고계시나
통일의
만세소리
어서
들려
달라고
아버지
새벽달
되어
기다리
고계시나
이제
아버지는
없다.
피를
태우는
애절한
목소리로
반
평생을
다
바쳐
아버지가
부
르셨든
어머니(남녘의
어
머니)도
이젠
아들을
부르다
가
숨졌으리라.
하지만
지금
은
바우물과
대술과
올라리
와
아버지의
발에
익고
우리
가족들의
머리에
새겨진
골
목길과
마을
살계천이
떠
나간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대신하여
분렬된
조국의
아
들말들을
부른다.
마음에
가
득하고
끝없이
가득하고
가
득한
말에
가득한
그
소리가
정
녕
조국의
목소리가
아니겠
는가!
김
종
섭
(김
상
훈
의
말
이
들)



너는 또 묻는구나
내가 왜 고향말씨를 버리지
못하느냐고
사투리가 무슨 귀한 유산
이나
몸에 밴 향수도 아니란다
세월은 흐르고
모습은 변하여
얼굴가득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엔 백발이 성성해도
40년을 하루같이
고향사투리를 버리지 못한
그런 아들도 있음을 보여
주라고
통일독립의 그날을 위하여
사투리를 버리지 못하고있
단다

# 창조와 기적을 안아오는 애민헌신의 장정

최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1116호 농장을 현지도하시였다.

농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농장에서 해마다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일관하게 벌여 큰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하시며 앞으로도 세계적수준의 우량종자들을 더 많이 육성개발함으로써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푸는데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러 차례 현지도하신 농장은 종합적인 종자연구개발기지로서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는 다수확종자들을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현지도는 농장에서 자랑할만한 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그 농장뿐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의 자욱이 이어지는 모든 곳에서 비약과 전변이 마련되고있다.

이 땅에 새로운 전변을 안아오는 그이의 현지도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과학적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는 창조와 변혁의 장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도의 길에서 밝혀주시는 모든 문제들은 인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강령적지침, 세계적인 발전수준과 추이를 과학적으로 타산한 첨단과학의 묘술이며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구체적이고도 완벽한 지도방법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고산과수농장(당시)을 현지도하시며 서부지구에 꾸러진 대동강과 수충합농장과 같이 이곳에

도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과일가공기지를 건설하여 동부지구에서 생산하는 과일들을 가공하게 함으로써 나라의 동서부를 포괄하는 리상적인 과일가공기지를 형성하도록 하신것은 그 하나의 실례로 된다.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맛볼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펼칠수 있는 휘황한 설계도이다.

그이의 현지도는 어떤 일이나 시작부터 마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구체적인 료해와 그에 따르는 세심한 지도가 안받침된 완벽한 지도이다.

문수물놀이장건설 지도만 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착공으로부터 기본건설과정, 완공단계, 준공을 앞둔 때에까지 찾고찾으시며 물놀이장이 후날에도 손색

이 없이 훌륭히 꾸러지도록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류정원, 인민야외빙상장, 옥류야동병원, 룡라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 모든 창조물들이 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체적이고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일떠선 창조물들이다.

현지에서 실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포착한데 기초하여 근본적이고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는 다방면적인 지식과 비상한 정도실력, 끝없는 열정과 노력이 안받침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는 사람들의 정신력, 마음을 움직여 강국건설의 비약을 안아오는 위력한 대중령도이다.

대중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 때 무서울것이 없고 불가신할 없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거창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울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불철주야의 현지도로 대중의 정신력, 창조력을 분출시켜 새로운 기적이 다계단으로 일어나도록 하시였다.

남들 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할수 없는 방대한 건설을 그처럼 짧은 기간에 끝내여 《마식령속도》가 창조된것은 마식령지구에서 사회주의 웃음소리, 룡동당만세소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농촌마을들에 울릉이 일떠선 살림집들과 새집들이하는 주민들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농촌마을들에 울릉이 일떠선 살림집들과 새집들이하는 주민들

무릇 건축은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문화적제부라고도 한다.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면모를 직관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건축에는 해당 시대의 모습이 비껴게 된다. 그래서 한 나라의 역사는 건축물의 발전사라고도 하는것이다.

오늘 공화국의 건축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비상히 발전하고있다.

류정원, 인민야외빙상장, 은하과학자거리, 길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야동병원, 류정원기념관,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21세기의 새로운 문명화기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융계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통과시키고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약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에는 공화국에서의 건축의 본질과 특징, 목표와 방향이 두

렷이 밝혀져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건설의 대변영기가 어떻게 펼쳐졌고 무엇으로 마련되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있다.

그 밑바탕에 초석으로 놓여있는것이 다름아닌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인민사랑이다. 시대를 대표하고 인민들이 쓰고 살 건축물들은 먼 후날에도 손색없이 완전무결해야 하며 사회주의문명국의 근본이 될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부르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일떠서는 거리가 철두철미 인민의 편익과 리익을 최우선시하는 인민의 거리를 되게 하기 위하여 수십차례 걸쳐 무려 1390여건의 형성안을 보아주시고 때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집무실에서, 때로는 하늘의 못별도 조는 깊은 밤에 세계최고의 수준이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건축물에 인민을 하느님처럼

중등학원과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옥류야동병원, 미림승마구락부 등에서 꽃피웠고 오늘은 백두산기슭의 삼지연군건설장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비롯한 나라의 곳곳에서 아름답게 꽃피고있다.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모든것은 세계최고의 수준이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건축물에 인민을 하느님처럼

이 다 자기 특색과 고유한 미를 갖추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상한 건축학적실력앞에 누구나 찬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주체건축의 최전성기를 대표하는 하나하나의 건축물은 인민이 세상에 부러울것없이 만복을 누리게 할 크나큰 포부와 리상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창조력, 무한대한 열정과 열렬한 인민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대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수행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철두철미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세계적수준에서 창조되는 바로 여기에 인민적인 건축으로서의 주체건축의 참모습이 있다.

주체건축의 본보기, 표준들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건설의 대변영기와 더불어 더욱 눈부시게 펼쳐질 공화국의 래일이 눈앞에 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 인민사랑은 건축물마다에도

중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그이께서는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는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조형예술성이 조화를 이룬 건축물들에 그대로 비껴여있다.

몇해전에 건설된 려명거리에 새겨진 이야기는 오늘날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룡남산을 언젠가 마음속에서 산하 간직하시고 조선혁명의 려명은 해산의 룡남산에서 밝아온다는 뜻에서 거리를 《려명거리》

하시였다.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안겨줄수 있겠는가 하고 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진정은 그이께서 오르신 70층짜리 살림집과 그 높이를 가능해보신 부영의 찬장, 아늑한 서재의 산뜻한 그림과 살림집기단층에 뿌리내린 꽃과 나무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건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그 향유자도 인민대중인것만큼 건설에서는 마땅히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어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에 숭고하고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의 높은 뜻이 평양

에서부터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가 집대성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공화국은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속에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훌륭히 구현된 회화한 건축물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며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의 대변영기를 창조하고있다.

건축물을 일떠세우는 데서 3대요소인 설계와 시공, 건설은 물론 목구조와 불장식 지어 간판과 마코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건축물의 내외부형성에 중자가 일관하게 관통되도록 하며 개개의 건축물

이 다 자기 특색과 고유한 미를 갖추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상한 건축학적실력앞에 누구나 찬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주체건축의 최전성기를 대표하는 하나하나의 건축물은 인민이 세상에 부러울것없이 만복을 누리게 할 크나큰 포부와 리상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창조력, 무한대한 열정과 열렬한 인민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대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수행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철두철미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세계적수준에서 창조되는 바로 여기에 인민적인 건축으로서의 주체건축의 참모습이 있다.

주체건축의 본보기, 표준들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건설의 대변영기와 더불어 더욱 눈부시게 펼쳐질 공화국의 래일이 눈앞에 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이 민 위 천 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좌우명이다.

이 땅에 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아들이는것이, 이것이 바로 그이께서 지니신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이다.

그이의 인민사랑은 인민을 하느님처럼 떠받드는 숭배심과 함께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뿌리를 두고있는 가장 열렬하고 공교한 사랑이다.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원수님이시기에 설계를 하나 해도 인민의 리과 편익을 최우선시하도록 하고 거리를 일떠세우도 인민을 위한 취미를 세우도록 하시며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아동병원, 치과병원, 안과 종합병원 등을 일떠세워주시였다. 세해 전 북부지역이 엄청난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에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들이 당한 불행은 하루빨리 가셔주는 일보다 더 중차대한 사안은 없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당장 들이닥칠 강추위앞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피해복구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이의 따뜻한 손길에 의해 나라의 북부지구에서는 단순한 피해복구가 아니라 따뜻한 새 마을, 새 거리가 단숨에 솟아오르는 화폭이 펼쳐질수 있었다.

그이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광장에서 하신 연설에서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은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요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라고 모든 영광을 인민에게 안겨주신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설에서 우리 인민을 떠난 오늘날의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하는 인민에 대한 고마움에 지금이 시각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의 정겨운 눈빛들을 마주하게 된다고,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그이의 온갖 심중에 불타는 열념은 오직 인민에 대한 절대복무의 정신만을 누구나 온몸이 찌릿하게 느낄수 있었다.

한명구

## 민족의 넓과 향취를 키우며 여기서여

###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주제 103(2014)년 10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이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에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애국사업이라고 하신 그이께서는 민족유산보호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였다.

역사유적유물들을 원상태로 잘 보존관리하는 문제,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이 깃든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하는 문제,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한 문제들을 밝히신 그이께서는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벌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민족음악을 장려하는것은 음악예술에서 민족성을 적극 살리고 조선민주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

에서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도록 할데 대하여 이리시였다.

그러시면서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음악부문에

### 지방특산물생산을 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방특산물생산을 늘이는것을 민족의 우수성을 살리고 빛 내이는 중요한 일로 보시고 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였다.

두해 전 10월 어느날 그이께서는 지방특산물생산에 큰 힘을 넣도록 할데 대하여 이리시면서 지방특산물생산을 적극 장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여러 지역에

쌍아울리신 고귀한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음악예술부문에서 민족음악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넣을데 대하여서도 가르치시였다.

서 제때되는 인삼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가운데서 개성인삼의 약효가 제일 높다 는것과 그 제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였다. 계속해서 그이께서는 개성인삼뿐 아니라 안변감, 성천약밤, 회령백살구를 비롯한 지방특산물들을 보호하고 그 생산을 늘이도록 할데 대하여서도 이리시였다.

본사기자

## 세계 진보적인 사들 격찬

### 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어나가는 조선

자주의 가치를 높이 추켜들고 자립, 자력으로 국력을 떨치며 사회주의한길로 승승장구해온 공화국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의 격찬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겐이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고 자주독립국가의 기본정표이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된다.

지구상에 제국주의, 지배주의에 맞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해나가는 나라는 오직 조선뿐이다.

조선은 모든 력사적단계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거나 예속되지 않고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사회주의의 길을 전진시켜왔다.

조선이 자주성을 견지할수 있는것은 투철한 자주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가장 훌륭한 지도적지침은 주체사상이라고 하면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 총서기 미하일 반첸코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고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 로모니아전국위원회 위원장 바셀레 오틀레아누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김정일동지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심화발전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고계신다.

사회주의강국을 떠나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에 대해 생각할수 없고 국력이 없이 사회주의강국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국력은 나라와 민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지켜준다.

침략과 전쟁, 타락과 빈궁이 만연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안아오자면 주체사상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 토마스 튀쉬는 조선의 현실은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며 비록 크지 않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위용떨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함 정도에 사회주의의 길로 뜻이 나가는 조선은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등대로 되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완공단계에 이른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지휘부 책임인공들로부터 공사진행정형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시고 실내온천장과 야외온천장, 스키장을 비롯하여 치료 및 로양구역들과 다기능체육문화지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체육문화휴식기지로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관광지구를 보시며 관광지구가 지대특성과 자연환경에 잘 어울리게 건설되였다고, 특히 건축군이 조화롭게 형성되고 건물들사이의 호상결합성이 아주 잘 보장되였다고, 이것은 건축에서 하나

의 비약이라고, 우리 건축에 대한 자긍심이 생긴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어 온천관광지구의 봉사건물들을 보시면서 정말 특색이 있다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봉사단위 종업원들의 살림집들도 고급한 별장같다고, 온천관광지구주변의 농촌마을들은 농촌마을건설의 본보기가 되였다고, 이것이 우리 식, 조선식건설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가 어렵고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보란듯이 제 힘으로 일떠세운 온천관광지구는 물질적 재부이면서도 정신적재부이라고 하시면서 온천관광지구를 인민군대가 건설하였는데 건설에 동원된 부대는 싸움준비도

잘하고 건설도 멋들어지게 잘한다고,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미래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말 보람있는 일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양덕군 온천관광지구의 건축형식과 내용이 새롭고 독특할뿐아니라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는 종합적인 치료 및 로양기로서 봉사부문에서 새로운 분야가 개척된것만큼 모든 봉사자들이 온천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온천문화가 발전된 나라들의 봉사형식과 내용도 잘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적한 산간지대에서 온천관광지구건설총계획도를 펼쳐놓고 건설문제를 토의하던 때가 엇그제일같은데 1년도 안되는 사이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양덕군의 전반적인 면모가 완전히 일신되였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면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의 환경과 분위기가 참 좋다고, 이제 온천장과 스키장이 운영을 시작하면 이곳은 사람들로 들끓게 될것이라고, 이런 양덕의 풍경을 위대한 장군님께 보여드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돌아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개운하다고 하시면서 금강산관광지구와 정말 대조적이라고, 적당히 건물을 지어놓고 리운추구를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기업들의 건축과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한 사회주의건축의 본질적차이를 종합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축물 하나도 시대의 사상이 반영되고 인민의 존엄의 높이, 문명수준이 반영되는것만큼 건설은 중요한 사상사업이나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건축에서 주체를 세워 우리 민족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는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손색없이 꾸려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성향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유류관, 금강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2온정각, 고성향회집, 고성향골프장, 고성향출입사무소 등 남조선측에서 건설한 대상들과 삼일포와 해금강, 구룡연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관광지구에 꾸러놓은 봉사건물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건축물들이 민족성이라는것은 전혀 찾아볼수 없고 범벅식이라고, 건물들을 무슨 피해지역의 가설막이나 격리병동처럼 들어앉혀놓았다고, 건축미학적으로 심히 라후할뿐아니라 그것마저 관리가 되지 않아 람투하기 그지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땅에 건

설하는 건축물은 마땅히 민족성이 짙은 우리 식의 건축이어야 하며 우리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창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속도처럼 되어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강산은 피로써 쟁취한 우리의 땅이며 금강산의 절벽하나, 나무 한그루에까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금강산관광봉사와 관련한 정책적지도를 맡은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금강산관광지구의 부지를 망랑 떼어주고 문화관광지에 대한 관리를 되변하여 경관에 손해를 준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조국강도

에는 뛰어난 명승지가 많지만 천태만상의 자연경관을 이루고있는 금강산은 명승의 집합체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자연경치를 인민들이 한껏 즐기면서 휴식할수 있게 금강산지구에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를 훌륭하게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강산에 고성향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를 꾸리며 이에 따른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을 먼저 작성심의하고 3~4단계로 갈라 나눠별로, 단계별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성향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마다 현대적인 호텔과 리관, 빠른속도를 건설하고 골프장도 세계적수준에서 다시 잘 건설할데 대한 문제, 고성향해안관광지구에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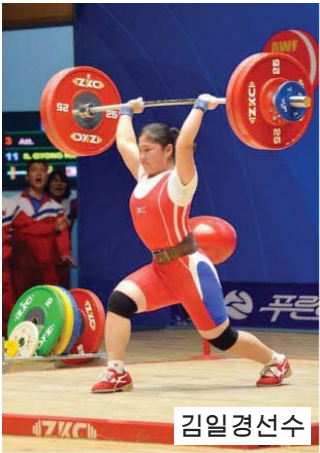
구려객역을 건설하고 항주변을 봉쇄할데 대한 문제, 린집군에 관광비행장을 꾸리고 비행장으로부터 관광지까지 관광전용열차로선도 새로 건설할데 대한 문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조건에서 스키장도 건설할데 대한 문제 등 금강산관광지구를 특색있게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축은 나라와 민족의 문명정도, 해당 사회의 발전정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현재 금강산관광지구에 널려져있는 너절한 호텔과 빠른속도봉사시설들을 다 헐어버리고 건물들을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을 결합시킨 우리 나라 건축형식의 전형성을 띠면서 발전된 형태로 훌륭히 건설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명산을 보러 와서 조선의 건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강산관광지구일대를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이 하나로 련결된 문화관광지구로 세계적인 명승지답게 잘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계적인 관광지도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것이지만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대해 우리 사람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민족의 명산 금강산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명산,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새롭게 단장하고 우리 인민들을 맞이하게 될 그날은 멀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 2019년 아시아청소년 및 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공화국선수들 련일 우승

청춘거리 령기경기판에서 진행되고있는 2019년 아시아 청소년 및 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공화국선수들이 련일 우승하고있다. 청소년경기 여자 40kg급, 45kg급, 남자 49kg급에서 박영, 백혜정, 박명진선수들이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에 각각 1위를 하여 종합 1등을 하였다. 청년경기 남자 55kg급에서 조선의 박중국선수는 끌어올리기에 1위를 하였다. 청년 남자 61kg급경기에서 김중국선수는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에 각각 1위를 하고 종합 1등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추켜올리기에 159kg을 들어올려 세계 및 아시아기록을 갱신하였다. 원현선, 리봉현선수들은 청소년 여자 49kg급, 청년 남자 67kg급에서 끌어올리기, 추켜올리기, 종합에서 각각 1위를 하였으며 한정심선수는 청년 여자 49kg급 경기 추켜올리기에 종합에서 각각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청년 남자 55kg급경기에서 박진해선수는 청소년 여자 55kg급경기 끌어올리기에 87kg을, 추켜올리기에 110kg을 성공시켜 종합 197kg으로 세부종목과 종합에서 세계 및 아시아청소년 기록을 돌파하고 우승의 단상에 올랐다. 청년 여자 55kg급경기에서 김지향선수는 추켜올리기에 세계 및 아시아청년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종합에서 아시아청년 새 기록을 세우고 금메달 3개를 획득하였다. 중국향선수는 청년 여자 71kg급끌어올리기에 108kg을, 추켜올리기에 139kg을

성공시켜 종합 247kg으로 세부종목과 종합에서 아시아청년 새 기록들을 세우고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렸다. 청소년 여자 64kg급경기에서 출전한 리숙선수는 끌어올리기, 추켜올리기, 종합에서 각각 1위를 하여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우수향선수는 청소년 여자 71kg급추켜올리기에, 로광렬선수는 청년 남자 81kg급추켜올리기에 우승하였다. 본사기자



김일경선수



김중국선수



박진해선수



김지향선수

오늘도 공화국에서는 무료 교육제, 무상치료제, 사회보장제, 사회보장제를 비롯하여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이러한 인민적시책들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고 인민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공화국의 제도하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공화국에서 실시되고있는 모든 인민적시책들은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된 이 땅에 민주의 새 나라를 건설하시던 날에 벌써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하시어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고 근로하는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

였다. 토지개혁법령, 중요산업국유화법령, 남녀평등법령... 해방후에 진행된 모든 사회경제적변혁들은 어느것이 나 다 인민대중을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울수 있게 그 하나하나의 조항이 제

근로자들의 정후양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취해졌으며 학생들의 교과서와 군용차에 실려 수송되는 전설같은 이야기도 꽃피었다. 전반적무상치료제도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실시되었고 넓은 사회의 유물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슴 벅찬 현실은 세상사상사람들을 경탄시켰다. 여기에 공화국을 돌아본 어느 한 나라의 종교인은 《조선은 예수가 와도 할 일이 없는 인간천국이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과 같은 시책들이 새롭게 실시되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이 나날이 현실로 꽃피어가고있다. 인민적시책들과 더불어 날로 커가는 행복의 웃음소리에서 인민들은 사회주의강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 본사기자



◆사람이 살아가자면 보금자리가 있어야 한다. 보금자리 는 인간의 안식처이고 한가정의 요람이며 생활과 웃음이 꽃피는 터전이다. 보금자리가 없으면 가정도 없고 기쁨도 없으며 동지없는 날새와 같이 이리저리 떠돌며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만다. 하기에 예로부터 《설움중에 큰 설움은 집없는 설움》이라고 했고 《어

러서는 어머니가 집이고 커서는 집이 어머니》라는 말도 생겨났다. 《저 달살의 계수나무 꼭대기로 짙어다가 옥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라는 노래

집값이 너무도 비싸 먹고 살기도 힘든 가정들에서는 집을 도저히 장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치맥을 이겨 넘겨주는 공화국에서는 국가가 집을 지어 무상

들도 해아릴수 없이 많다. ◆이 세상에 집문제라 빛나게 해결되고있는 곳은 공화국이다. 인민중시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는 국가가 집을 지어 무상

으로 인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최근 수년어간에만 도 황홀하게 일떠선 창천거리, 온화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령명거리의 멋진 주택들에 돈 한푼 안 들이고 행복의 보금자리를